



우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입니다.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제공합니다.

참여 절차	의료진의 안내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	
제공 내용	교육상담 • 질환의 이해 및 치료 • 질환 예방 및 합병증 • 수술(시술) 전후 주의사항 및 자가 관리 방법 등	심층진찰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종합적 상담
소요 시간 및 추가 비용	교육상담 • 수술(또는 시술) 전 후 15~20분 이상/회 • 초회 4,910원 / 재회 3,360원 추가 부담 단, 건강보험 차상위는 추가 부담이 없음	심층진찰 • 수술(또는 시술) 전 15분 이상/회 • 초진 210원 / 재진 1,550원 추가 부담 단, 건강보험 차상위는 추가 부담이 없음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March + April 03/04 Vol. 169



04 **한눈에 보는 질병**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



16 **HIRA 톡아보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18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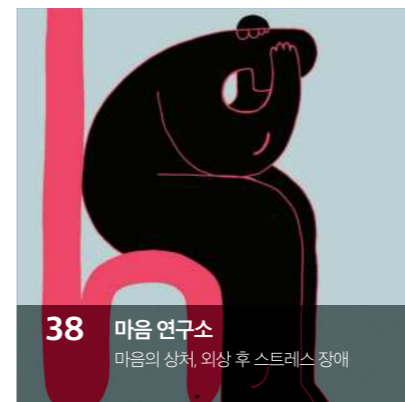
22 **내 삶의 활력**
 굴릴수록 즐거워지는 인생, 불링동호회



24 **건강한 동행**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QI 컨설팅 참여



34 **그곳에 가면**
 실랑실랑 봄바람에 취하는 여수 나들이



38 **마음 연구소**
 마음의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0 **HIRA New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3·4월 소식



46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등



2019 03/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전문지 Vol. 169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Contents

건강한 이야기

- 04 **한눈에 보는 질병**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
- 08 **질병 A to Z**
뇌졸중 예방에 대한 모든 것
- 14 **병원평가정보**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 평가결과

행복한 이야기

- 16 **HIRA 톨아보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 18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 22 **내 삶의 활력**
굴릴수록 즐거워지는 인생, 불링동호회
- 24 **건강한 동행**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QI 컨설팅 참여
- 28 **정책·이슈**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심층진찰 시범사업
- 30 **문화 산책**
인생의 봄날을 다시 맞을 수 있다면!
- 34 **그곳에 가면**
살랑살랑 봄바람에 취하는 여수 나들이
- 38 **마음 연구소**
마음의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40 **HIRA News**
일·가정 균형 및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참여 외
- 42 **독자의 소리**
전북 남원시 홍주희 님 외

유익한 이야기

- 의약계 안내사항**
- 46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 48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 52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서비스**
- 54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56 **전문병원 지정 제도**
- 58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

Special Theme.

뇌졸중 Strok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발행일_ 2019년 4월 12일 통권 제169호 발행처_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_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_ 김승택 편집인_ 김형호
기획 디자인_ 유니크플러스 인쇄_ 세원문화사
고객센터_ 1644-2000 / 033-739-03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팟캐스트 <오케바디>: <http://www.podbbang.com/ch/9584>
심평TV: <http://hiratv.or.kr>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 t r o k e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중 세 번째를 차지했다. 또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만 2,745명으로 총 사망자수인 28만 5,534명의 약 8%에 달했다.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를 통해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에 대한 더 다양한 통계를 알아보자.

***주의사항**

본 통계는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용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환자 수치와 다를 수 있음.



뇌졸중(Stroke)

뇌기능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 국민관심질병통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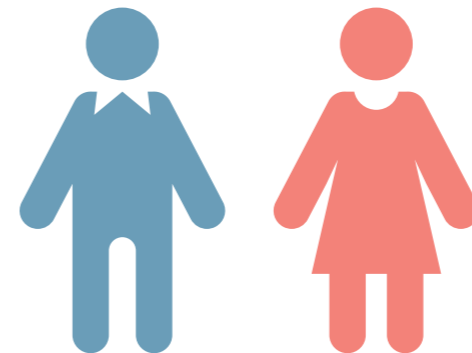
연도별 뇌졸중 환자수? 꾸준히 증가 추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졸중을 앓고 있을까?

57만 7,689명

남성 31만 416명 여성 26만 7,273명



환자 1인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290만 9,23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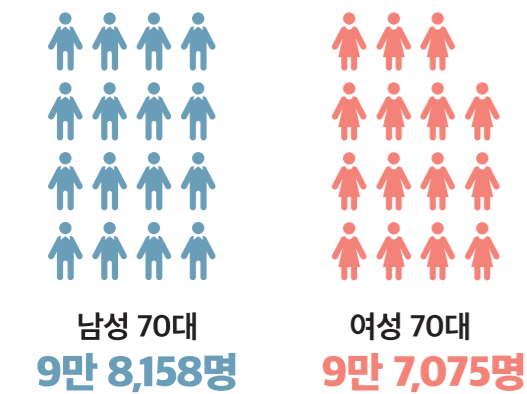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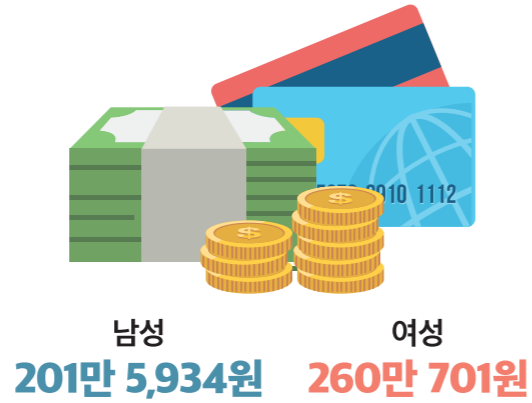
남성 256만 3,658원 여성 331만 586원



S t r o k e

환자 1인당 보험자부담금은? 228만 6,481원

뇌졸중 환자의 1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은 228만 6,481원이며, 남성은 201만 5,934원, 여성은 260만 701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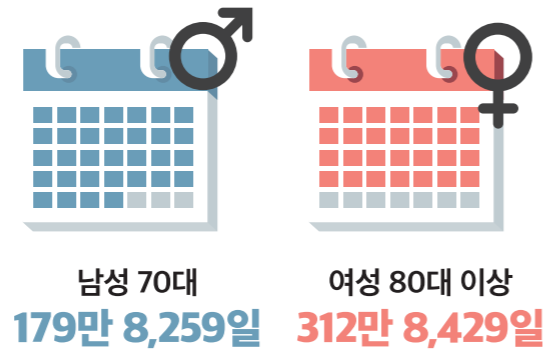


성별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 여성 7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모두 70대로, 남성은 70대(9만 8,158명), 60대(9만 2,445명), 50대(6만 1,041명) 순이며, 여성은 70대(9만 7,075명), 80대 이상(7만 6,329명), 60대(5만 9,207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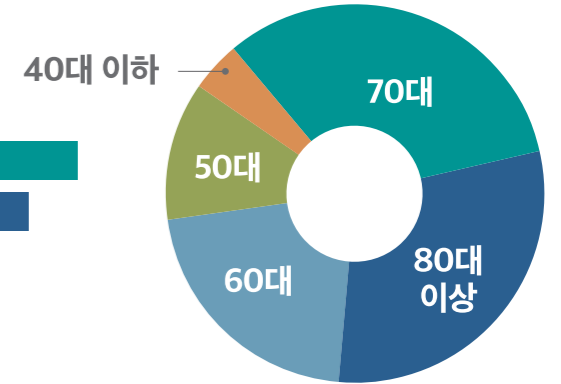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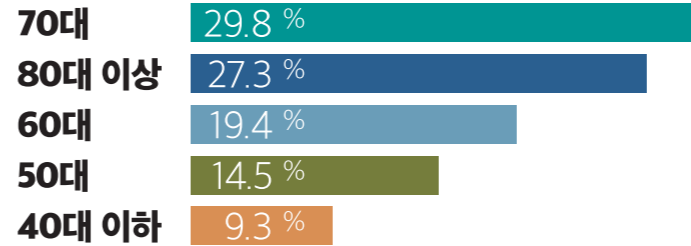
성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70대, 여성 80대 이상

연령구간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70대(179만 8,259일), 60대(151만 633일), 80대 이상(114만 8,907일) 순이었고 여성은 80대 이상(312만 8,429일), 70대(237만 1,247일), 60대(97만 446일) 순이었다.



S t r o k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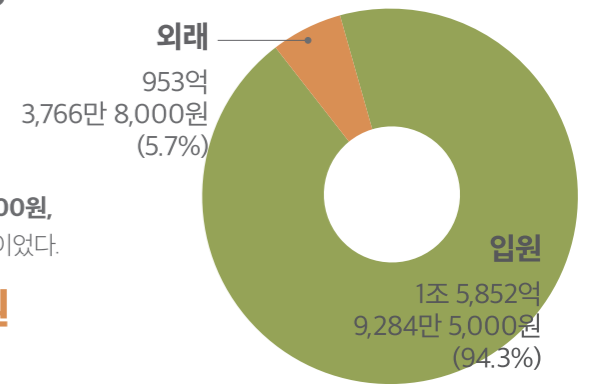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 70대



입원외래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은? 입원 94.3%, 외래 5.7%

입원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조 5,852억 9,284만 5,000원, 외래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953억 3,766만 8,000원이었다.

입원 1조 5,852억 9,284만 5,000원
외래 953억 3,766만 8,000원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종류는? 병원급



S t r o k e

어르신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바로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몸 한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식을 잃는 증상을 통틀어 말한다. 수년 동안 뇌졸중은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장애 발생률 1위이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재생되지 않으므로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이 생긴다. 따라서 어떤 질병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허혈성뇌졸중)과 뇌출혈(출혈성뇌졸중)로 구분된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 발생하는 반면, 뇌출혈은 약해진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뇌출혈의 빈도가 뇌경색보다 높았지만, 1990년 초부터는 뇌경색이 더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효과가 좋은 고혈압 약이 보급돼 뇌출혈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동맥경화 환자가 급증하면서 뇌경색 발생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뇌경색 및 뇌출혈의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뇌경색의 원인과 예방법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영양섭취가 문제다.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인데, 이는 몸의 에너지 밸런스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의 성인이 섭취한 음식의 총열량 중에서 몸의 기초 대사에 사용되는 열량을 제외한 남은 에너지는 체내에 쌓이게 된다. 초기에는 주로 비만세포나 간세포에 쌓여 뚱뚱해지고 지방간을 만든다. 이러한 증상이 두드러지게

된다면 이미 대사증후군, 전 당뇨 단계 및 혈관의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량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운동으로 남은 열량을 모두 소모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나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뇌혈류초음파나 경동맥초음파 등의 선별검사를 통해 동맥경화 정도를 진단하고, 필요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뇌경색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심한 협착까지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항혈전제와 콜레스테롤 약물 외에도 경우에 따라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협착 부위를 넓힘으로써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굵은 동맥에 발생하는 동맥경화가 뇌경색 원인의 30%라면, 또다른 30%는 소혈관 질환으로부터 유발된다. 소혈관은 CT나 MRI 혈관 촬영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다. 고혈압은 소혈관 내부에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혈관은 대부분 뇌 심부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 분포하는 곳에 혈액

뇌졸중 예방에 대한 모든 것



뇌출혈의 원인과 예방법

뇌출혈은 주로 뇌동맥류, 소혈관 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중 사망률과 중증도가 가장 높은 것은 뇌동맥류(뇌동맥이 약해진 부위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로 인한 뇌동맥 파열이며, 이를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른다. 뇌동맥이 파열되면 국소적 증상보다는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혈관영상촬영을 통해 뇌동맥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출혈의 또 다른 원인은 뇌경색과 마찬가지로 소혈관 질환이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소혈관의 변성이 심해지며 말단이 약해지게 되면 결국 터지게 된다. 이것을 뇌내출혈이라고 하는데, 열공성 뇌경색보다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한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적절한 약물복용으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혈압은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혈압이 오르게 된다. 가벼운 술 한 잔 정도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애주가들의 말도 있지만, 안 마시던 술을 혈관 건강을 이유로 굳이 마실 필요는 없다. 과음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뇌졸중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가벼운 술도 권하고 싶지 않다. 특히, 와인은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을 공급한다. 따라서 열공성 뇌경색(크기가 작은 뇌경색)이라고 해도 심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도 뇌경색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심방)이 분당 200~300회 불규칙적으로 박동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은 그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수축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혈전(핏덩어리)을 생성하게 된다. 심방세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한번의 심전도 검사만으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돌발성 심방세동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지속적 심방세동과 돌발성 심방세동은 모두 색전증을 유발한다. 뇌 색전증은 심방세동으로 형성된 혈전이 갑자기 뇌로 날아 들어가는 증상으로, 혈전이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킨다. 명치 부위에 불규칙한 박동이 자주 느껴진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받고 적절한 항혈전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잦은 과음은 심방세동이나 기타 부정맥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어떤 종류의 뇌졸중이든 갑자기 마비가 발생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만일 마비가 '삼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근육까지 발생했다면 물과 같은 맑은 액체나 청심한 같은 굵은 약물을 잘못 삼켰을 때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게 돼 호흡장애나 폐렴까지 유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해야 조금이라도 후유증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에 연락하자.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관에 위험한 요인을 약물로 적절하게 치료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열량이 높은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촉진하여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간식 섭취는 영양 과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삼시 세끼만 잘 챙겨 먹기를 권장한다. 비타민 섭취에 중요한 과일도 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흡연은 동맥경화, 술은 뇌출혈의 위험 요소이므로 금연은 필수이며, 과음을 삼가야 한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다리 근육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속도감 있게 걷는 것을 추천하며, 노화 방지를 위해 일부 근력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뇌졸중에 특별히 좋다고 하는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찾지만, 건강 상식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하지 않은 영양 섭취, 충분한 운동, 금연과 금주 그리고 위험인자를 줄이는 규칙적인 약물 복용 등 건강 상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요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흰살생선 채소찜

재료

흰살생선포 100g, 가지 반 개, 애호박 반 개, 단호박 2조각, 표고버섯 2개, 파리고추 3개, 토마토 반 개, 소금, 후추, 현미가루 조금

드레싱

간장, 맛술, 식초 1큰술, 설탕, 통깨 조금

요리법

- ① 흰살생선은 체에 발치고 소금, 후추를 뿌린다.
- ② 가지, 애호박은 도톰하게 썰고 표고버섯은 어슷하게 2등분한다.
- ③ 토마토와 단호박은 모양 그대로 1cm 두께로 썰어서 준비한다.
- ④ 파리고추는 꼭지를 짧게 자르고 꼬챙이로 구멍을 뚫어 놓는다.
- ⑤ 준비한 생선 살에 현미가루를 조금 뿌리고 나머지 재료들과 같이 김 오른 찜기에 3~4분 정도 살짝 찜다.
- ⑥ 드레싱을 만든다.
- ⑦ 찜낸 음식을 그릇에 담고 드레싱을 뿌린다.

맛있게! 건강하게! 뇌졸중 환자의 영양 균형을 위한 추천 요리

뇌졸중을 치료하는 음식은 없다. 하지만 영양 균형을 맞춘 요리는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진수 교수가 추천한 뇌졸중 환자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봤다.



영양 균형을 위한 전문가의 추천 요리

- **두부 요리:** 포만감을 유지시키며,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음식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
- **흰살생선 요리:** 지방이 적으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 **백미, 잡곡 혼합밥:** 백미에 몇 가지 잡곡을 곁들이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량 섭취도 줄일 수 있다.

담백하고 든든한 두부 샐러드

재료

두부 반 모, 푸른 잎채소 적당량, 오이 반 개, 미니 파프리카 2개, 블랙올리브 5개, 호두 적당량

드레싱

간장, 식초, 물 1큰술, 설탕, 다진 양파 1작은술, 참기름, 후추 약간

요리법

- ① 두부는 1x1cm 크기의 정육면체로 자르고 오이, 파프리카는 동그랗게 자른다.
- ② 잎채소는 큼직하게 썰어 찬물에 담갔다가 건진다.
- ③ 그릇에 담고 두부와 블랙올리브, 호두를 올리고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뿌린다.





급성기 뇌졸중

병원평가정보 알아보기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하는 위험 질환입니다. 또한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뇌졸중 재발방지 및 장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 평가결과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했나요?

평가대상	대상 기간	2016년 7~12월(6개월)
	대상 기관	급성기뇌졸중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건이 10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환자	급성기뇌졸중으로 주상병이 I60~I63*이면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 I60 지주막하 출혈, I61 뇌내 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I63 뇌경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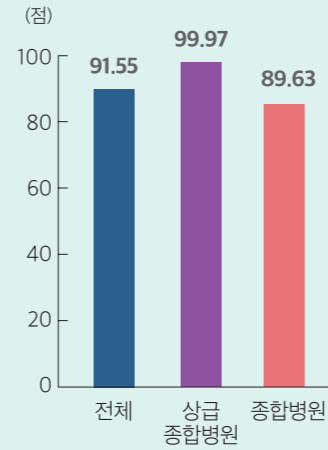
어떤 내용을 평가했나요?

평가내용	급성기뇌졸중 진료의 초기진단, 치료대응력 등 초기 치료 및 이차예방 부문으로 평가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부문)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사 전) (치료부문) 전문인력 구성여부(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예방부문)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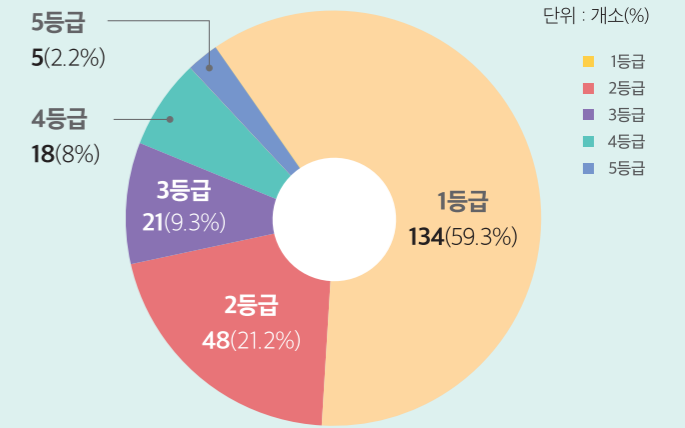
평가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며,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급성기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병원입니다.
------	--

종합점수 종별비교



평가등급별 현황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급성기뇌졸중

병원평가정보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별 투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HIRA 톨아보기

*'톨아보다'는 순우리말로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톨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1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점검

- 1) 함께 먹어도 안전한 약인지
- 2)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은 약인지
- 3) 하루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지
- 4) 어린이나 노인이 먹어도 되는 약인지
- 5)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약인지
- 6) 먹고 있는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이 중복되는지 등



2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정보를 환자 자신이 직접,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의료정보 >>
- 건강정보 모바일앱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3 내가 먹는 약 안전한지 알아보기

같이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입력하면 의약품 간의 금기나 중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의료정보 >>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뛰어다니며 직접 소통하는 만큼 신뢰는 두터워진다

“결과는 결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어떤 일이든 맘 흘려 매진한다면 그 열매는 풍성할 것이다. 올해로 출범 4년 차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심 없이 달려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정부지원의 한결같은 노력을 들여다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발로 뛰는 심평원’ 자리매김할 것

지난 2016년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이하 의정부지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이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000여 개 기관을 관할하는 의정부지원은 2018년도 한 해 약 5조 300억 원의 진료비를 심사 결정했다. 현재 의정부지원이 담당하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은 기존에는 소위 ‘현장 업무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지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업무 특성상 현장과의 교류가 중요한 심평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의정부지원의 출범은 그간 소외 시 됐던 해당 지역 요양기관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심평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의정부지원 출범 4년 차. 80여 명에 불과한 인력과 지리적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직접 발로 뛰는’ 직원들 덕분에 의정부지원은 예상보다 빠른 기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출범 초기에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날보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소위 ‘발에 땀이 날 만큼’ 현장과의 소통에 주력했다”라며 “매월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전 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현지 확인 제도, 청구유류 사전점검서비스 홍보 등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 발로 뛴 시간에 대한 보상은 확실했다. 의정부지원에 대한 지지도를 제고한 것은 물론, 거리가 가장 먼 강원도 영동지역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의정부지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의 단초를 꾀는 데 성공했다. 박 지원장은 “그동안 몰라서, 혹은 의견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요양기관과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상호 협력해 보완하는 한편, 서로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 행보로 요양기관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다

의정부지원이 내건 '발로 뛰는 심평원'이라는 슬로건과 그에 따른 업무 추진은 요양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신뢰로도 이어졌다. 1사 1촌 봉사활동, 지역 농산물 구입 캠페인, 의료취약지역 의사협회와의 공동 건강검진, 관내 장애인 복지관 급식 봉사 및 바자회 참여, 관내 6개 공공기관 청렴 캠페인 실시, 의정부역 공원 내 심평원 홍보 정원 조성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박 지원장은 주민과의 '직접 소통 역시 요양기관과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부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발자취를 남기는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의정부지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적정진료 제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도 지원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쌓인 요양기관과의 공감대와 주민들의 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박 지원장은 "요양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목표"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적정진료율 안정성 확보와 주변 기관 개선 유도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제도'도 주목할 것 중 하나다. 해당 제도는 요양기관 신규 개설 시 심평원 신고사항에 대한 필요서류, 절차 및 방법,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신고 내용 착오·오류 발생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신규개설 요양기관 기호 부여 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접수 ▲현장 방문 서비스 강화 ▲15일 이내 유선 모니터링 실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영상정보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 지원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상호 신뢰 관계를 더 돈독히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원은 오는 2021년 새로운 사옥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위한 결정



이다. 오늘도 현장으로의 가열찬 달음박질을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의정부지원 직원들의 다부진 표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란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Mini Interview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셋째도 현장이다'

의정부지원은 출범 초기부터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직원들도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지원은 전 직원 모두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행정'의 기초를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왼쪽)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보람'

현장을 중시하는 지원의 철학에 따라 직원들 역시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때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위경란 심사평가2부 과장(오른쪽)

'높아진 기대, 전문성 강화로 보답할 것'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지원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전보다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심사체계 개편을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앞으로 제 개인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민 심사평가1부 과장(왼쪽)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 역량 키우겠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대내외교육, 정보 공개, 민원관리 등 대부분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 역량을 키움으로써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고객지원부 대리(오른쪽)





굴릴수록 즐거워지는 인생, 볼링동호회

굴림HIRA, '스트라이크를 향해 던져라'

목직한 공을 굴려 20m 건너편의 10개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 사시사철 언제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링'이다. 굴릴수록 크기가 커지는 눈덩이처럼 던질수록 즐거움이 불어나는 볼링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굴림HIRA'의 정기모임을 함께했다.

함께하면 기쁨 두 배, 즐거움 두 배

공을 들어 올린 팔에 힘을 주고 매서운 눈으로 목표물을 응시한다.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공을 굴린다.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굴러간 공은 10개의 목표물을 남김없이 쓰러뜨린다. 스트라이크! 모든 목표물을 쓰러뜨린 후 너나 할 것 없이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표적을 맞히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진하게 녹아있는 스포츠, '볼링'이다. 날씨나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볼링의 매력은 '함께'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릴 때면 우리 팀, 상대 팀 구분 없이 기쁨을 나눈다. 승리보다는 함께 경기하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굴림HIRA'는 약 50명의 회원을 보유한 심평원 최고의 볼링동호회다. 한 달에 2회씩 정기모임을 갖는 굴림HIRA는 참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종종 직장 동료가 아닌 외부인(?)이 참석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굴림HIRA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족 참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평소처럼 정기모임을 주최한 '열정의 동호회장' 권의정 부연구위원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링을 함께하는 동호회인 만큼 가족, 특히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며 "직장 동료와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가족 간 친목 도모에도 안성맞춤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임 역시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다. 빅데이터사업부 김록영 부연구위원이 아내와 딸을 대동하고 볼링장에 들어선 것이다. 딸의 깜찍한 애교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지사. 봄이지만 아직 밤에는 쌀쌀한 바깥 날씨와 달리 모임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했다. 오늘 참석자에 대한 출석 확인을 마친 후 미리 준비한 주전부리를 곁들이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갔다. 친목이 주목적이지만 어디까지나 경기는 경기. 사뭇 진지한 회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심평원 직원이라면 언제든 누구든 가입 문의 대화영

다수의 동호회 중에서도 굴림HIRA는 특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다. 권 회장은 "볼링이란 스포츠가 매력 넘치는 취미일 뿐 아니라, 우리원의 다양한 지원 덕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볼링을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화영이니 언제든 가입을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답해주겠다"라며 동호회 가입을 권유했다.

이날 경기는 치열했다. 최고 점수 280점을 기록하며 굴림HIRA의 일인자로 인정받는 빅데이터사업부 정명후 주임이 '투핸드볼링(두 손으로 볼링공을 꺼안듯이 던지는 형태)'으로 연신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에 질세라 255점의 하이스코어를 보유한 여성부 최강자, 일명 '스트라이커 제조기' 급성질환평가부 홍옥란 대리가 스트라이크로 응수했다. 바로 옆 라인에서는 평균 80점에서 가입 1년 만에 두 배 이상 점수가 오른 이은정 조사기획부 대리가 스페어 처리를 한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다.

정기모임 외에도 굴림HIRA는 지역 내 다른 기관의 볼링동호회와 정기전을 갖고 있다. 단순한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넘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행보다. 참고로 승률 70% 이상을 기록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명실공히 지역 최강의 볼링동호회, '굴림HIRA'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환자를 위해 의료 질 향상에 팔을 걷어붙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QI 컨설팅 참여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환자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숙명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QI(의료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미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원병원의 행보를 조명한다.



적정 진료의 시작,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약을 처방한다

1910년 개원해 무려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수원병원)은 15개 진료과, 181병상을 보유하고 26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거점병원이다.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수원병원은 지난해 새로운 변화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QI 컨설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QI를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정일용 수원병원장은 “그동안 병원 자체적으로 QI를 진행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에 대해 고심하던 중 2016년

심평원 QI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접했고, 바로 실무진을 꾸려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QI의 중요성을 잘 아는 수원병원은 2015년,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해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진행됐고, 인력이 부족해 결국 QI 전담팀을 해당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체 역량에 대한 한계를 고민한 수원병원은 심평원 QI 컨설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QI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병원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정 병원장은 “실제 QI 컨설팅 지원 병원 선정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라며 “그간 실무를 담당해온 적정진료실 직원, 병



놀라웠다. 컨설팅 참여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2018년 12월에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급성상기도 감염항생제 처방률 감소 43.12%→17.99% ▲처방건당 약 품목 수 감소 3.56개→3.30개 ▲6품목 이상 처방비율 감소 15.50%→9.55% ▲소화기관용 약 처방률 감소 41.63%→30.90% 등 대부분의 수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정 병원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고령층이 많은 까닭에 환자 측에서 먼저 약 처방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환자와 보다 심도 있게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 처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약은 만능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야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적정진료의 선 안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즉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약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적정진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 QI 컨설팅의 나비효과, 병원 전체 혁신의 단초가 돼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료 질 향상이 목적인 QI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구성원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병원이 QI 과정 중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신 팀장은 “처음에는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QI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교육한 결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할 만큼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정 병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개인이 아닌 병원 전체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대의명분 앞에 전 직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번 QI의 진정한 성과는 이른바 ‘나비효과’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처음 컨설팅 때만 해도 약제 적정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이후 전체적인 적정성 평가 관리를 목표로 부서별 QI 활동을 확장해 폐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뇌졸중, 중환자, 마취 등 적정성 평가 전반에 걸친 질 향상을 시도했다. 신 팀장은 “이외에도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만성 폐쇄성폐질환, 천식, 치과, 결핵 등을 분기별 성과관리지표로 관리함으로써 대승적 상향 성과를 거뒀다”라며 “해당 결과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적정진료를 올바르게 수행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원병원의 이번 QI 컨설팅은 심평원과 서로 유기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했다. 이 부분에서 심평원과 수원병원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보를 보였다. 심평원에서 병원의 개선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병원 측은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 병원장은 “우리 병원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해준 평가위원은 물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심평원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QI 컨설팅을 계기로 병원 및 의료 질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평가관리부 이승덕 부장은 “QI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병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만큼 지역의 의료 질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비단 수원병원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 질 향상의 행보는 결국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로 귀결된다. 병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환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및 환경 개선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겨운 체질 개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원병원의 행보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QI 컨설팅’이란?

QI 컨설팅은 질 향상 활동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평원은 평가위원의 기관 방문 교육, QI 지역 전문가의 멘토링 등으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컨설팅 팀의 협력을 통해 요양기관이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좌측부터 시계 방향) 평가관리부 안경미 차장, 정일용 병원장, 평가관리부 이승덕 부장, 평가관리부 조연우 과장, 적정진료실 이은정 간호사, 간호과 박효숙 간호과장, 적정진료실 신연덕 팀장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심층진찰 시범사업



살다 보면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수술 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받거나, 수술 후 자가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 기간 일시적,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실시기관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시범수가로 적용한다.

*추가 부담

 교육상담료 4,910원(초회 시) 3,360원(재회 시)	 심층진찰료 210원(초진 시) 1,550원(재진 시)
---	---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진의 안내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상담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일반 진찰행위와 별도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심층진찰은 질환에 대한 이해, 치료방법, 질환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진료과목 (단위: 개)

계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	성형외과
1,485	84	60	13	4	427	374	351	152	15	5

지역 (단위: 개소)

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	제주
1,485	583	399	166	125	91	83	31	7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한눈에 보기

구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대상	진찰과 별도로 수술 전·후 자가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상담이 필요한 환자	수술 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환자
실시 인력	시범사업 기관 소속 의사로서 교육과정 이수자	시범사업 기관 소속 전문의
대상 질환	10개 진료과목, 15개 상병(비급여 수술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양성질환(외과) •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 • 자궁내막선종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 척추협착(신경외과) •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외과) • 백내장(안과) • 유방암, 소이증(성형외과) •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이비인후과)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마취통증의학과) 	질환 제한 없음(비급여 수술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에서 질환에 대한 설명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 결정 •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
실시 시기	수술(또는 시술) 전·후	수술(또는 시술) 전
소요 시간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회	15분 이상/회
실시 횟수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
금액 ('19년 기준)	최초 교육 24,590원, 재교육 16,800원 (진찰료 별도, 환자부담률 20%) *추가 환자부담: 최초교육 4,910원, 재교육 3,360원	24,590원/회 (진찰료 포함, 환자부담률 20%) *추가 환자부담: 초진 시 210원, 재진 시 1,550원

인생의 봄날을 다시 맞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가 인생의 봄이었다'라고 말한다.
찬란했던 지난날은 기억 속에서 실제보다 더욱 빛나게 마련이다.
인생의 봄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새봄이 오듯 우리네 인생에도 오지 않은 봄이 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새로운 봄날을 만들면 어떨까. 2019년의 봄은 이제 시작이기에!



영화 특특(Talk-Talk)

이 봄,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봄은 언제인가요?

봄

드라마 | 102분 | 청소년 관람 불가
감독 조근현

민경의 남편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전하러 온 남자가 집에 눌러앉아 폭군처럼 군림하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아이 둘을 먹여 살리느라 슬퍼할 겨를도 잊고 살던 민경, 어느 날 정숙이 찾아와 민경에게 조각가 남편 준구의 조각 작품 모델이 되어 달라고 제안한다.
정숙은 남편 준구에게 해줄 게 없어 안타깝다. 최고의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던 준구는 병이 생긴 뒤 사람이 변해, 낙향한 후로는 작업도 접고 삶의 의지마저 꺾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준구. 그런 준구에게 정숙은 모델을 찾았다고 말해준다.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정숙에게 떠밀려 오랜만에 작업실을 찾은 준구. 정숙이 찾은 모델 민경은 준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비율을 가졌다. 하지만 이미 굳은 손으로 다시 조각할 수 있을까?
영화 <봄>은 전쟁과 가난으로 참혹했던 1960년대 말, 삶의 의미를 잃고 희망까지 빼앗긴 채 궁지로 내몰린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보듬어 나가는 여정을 그렸다.

새봄 희망 지수



2014년 4월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

생일

드라마 | 120분 | 전체 관람가
감독 이종언

사고 당일 아들 수호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순남은 모든 걸 잃은 표정으로 살아간다. 수호의 방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고 철마다 수호의 옷을 사 온다. 딸 예술에게도 관심을 뒤야 하지만 거기까지 미칠 여력이 없다. 예술이도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바다 갯벌도, 집 옥조도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을 먼저 떠난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정일과 순남의 가족.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했던 수호의 생일이 올 해도 어김없이 돌아오고 수호에 대한 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수호가 없는 수호의 생일.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서로가 간직한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로 하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절한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생일>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함께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 제목인 '생일'은 사람이 태어난 생일,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날 '생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새봄 희망 지수



연극 토크(Talk-Talk)

우리 곁에 봄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대학로 스타시티 타이니앨리스극장 Open Run

오늘도 어김없이 2년 동안 짝사랑한 명석에게 고백하려고 기회만 노리는 준희.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사랑을 이루어 준다는 로맨틱 컴퍼니에 의뢰하게 된다.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서 보여준 다음에 남자가 그쪽에게 다가오게끔 해야죠.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어필하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냉정하고 까칠하지만 의뢰인인 준희를 제대로 도와주는 태범과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연애 전략가 고대로. 이들이 준희와 명석의 완벽한 사랑의 타이밍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명석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그 뒤에는 테니스장에서 만남을 가지며 다가간다. 결국 준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싶다가, 로맨틱 컴퍼니에 의뢰한 사실을 명석에게 들키고 만다. 명석은 여태 했던 말과 행동이 다 거짓이었냐는 말을 남기며 떠나고, 준희는 며칠 후 다시 시작해보고자 용기를 낸다.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뷰티풀라이프

대학로 JIN 아트홀 4관 Open Run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애하기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는다. 연애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님살 커플이지만,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서로의 노력 끝에 다시 만나게 돼 결혼까지 성공하게 된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인생이라는 큰 쳃바퀴 안에서 힘들어도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사람을 위한 작은 준비! 그 큰 쳃바퀴를 뒤로 돌려보며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네 사랑 이야기.

<뷰티풀라이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부터 마지막까지 다룬,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삶을 다룬 이야기이지만, 노년 부부의 모습, 결혼한 모습, 연애하는 모습, 다시 노년 부부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보여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한 부부의 삶에 몰입하고 자신의 삶에 대입해 공감하게 한다.

도서 토크(Talk-Talk)

감성을 깨우는 시선(詩選)에 빠지다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별어도 가깝고
바람잡지 않아도
바람다운 길
... (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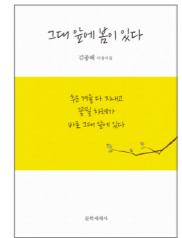
나태주, '먼 길' 중에서

다정한 감정이 녹아 있는

마음이 살짝 기운다

나태주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마음이 살짝 기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나태주 시인의 신작 시집이다.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등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집을 선보였던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연인과 가족, 친구, 자연과 지난날의 추억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감사함,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과 슬픔 등 폭넓은 정서에 관해 시를 썼다. 소소함 속에서도 여운과 다정한 감정이 녹아 있는 작품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주고 일상의 행복감을 선사한다.



꽃이 가득한 봄을 담은 시집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해 지음 문학세계사 펴냄

<그대 앞에 봄이 있다>는 시인이 평생 써 온 시들 중 시인이 좋아하는 서정시 33편을 엮어 출간한 시집이다. 삶에 대한 경험적 통찰과 따스하고 아름다운 서정으로 가득한 시집은 정갈하고 함축된 언어로 삶과 자연의 섭리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읽는 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이는 부드러운 서정에서도 삶에 대해 고찰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이 봄, 시인의 시를 읽으며 삶의 희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살아가는 일속에
파도치는 날 바깥 부는 날이
어찌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황이 닦을 내리고
일 할 줄 모르더라도
낮은 곳에 묻어 두어야 한다
... (후략) ...

김종해,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중에서

새봄 희망 지수 ★★★★★

새봄 희망 지수 ★★★★★

새봄 희망 지수 ★★★★★☆

새봄 희망 지수 ★★★★★☆

살랑살랑 봄바람에 취하는 여수 나들이

봄을 맞아 30년 지기가 의기투합해 나들이에 나섰다. 퇴직을 앞둔 박문숙 과장과 입사 동기이자 버팀목인 정영주 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소개할 여행지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로도 익히 알려진 전라남도 여수. 이들의 봄나들이를 동행했다.



여수 봄맞이 길, 봄 향기가 가장 먼저 스미는 곳

이맘때 여수는 봄기운을 느끼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일출 명소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항일암부터 봄이면 동백꽃이 탐스럽게 피는 오동도, 질푸른 남해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조성된 낭만포차까지. 여수는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가 가득하다.

근속 30년 차를 맞은 박문숙 과장은 “올해를 끝으로 정든 심평원을 떠나게 됐다”라며 “청춘이 스며든 직장에서 만난 소중한 동기와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법 이른 시각 여수에 도착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쿠아플라넷 여수이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국제적인 희귀종 벨루가(흰고래)와 바이칼 물범 등 총 280여 종, 3만 4,000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여행코스다. 동기와 추억 만들기에 나선 정영주 대전지원 고객지원부 과장은 “몇십 년 만에 수족관에 오니 어린 시절 추억이 솟아오른다”라며 “여행의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쿠아플라넷 여수 곳곳을 누빈 두 사람은 꼬박 관람시간 한 시간을 다 채운 뒤 문을 나

섰다. 다음 목적지는 봄을 알리는 꽃, 동백꽃이 섬을 가득 메우는 오동도였다. 오동도는 봄이면 섬이 온통 붉은 동백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봄이 도래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박 과장은 “체력이 부족 약해지는 연령대도 어렵지 않게 즐길 만큼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 있다”라며 “붉은 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아름답다”라고 평했다.

푸짐한 음식에 놀라고 화려한 야경에 또 한 번 놀라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 결과는 엉뚱한 곳에서 확인됐다. 해가 중천까지 솟아오를 무렵, 두 사람의 배가 점심시간이 됐음을 알렸다. 망설일 것도 없이 여수 하면 떠오르는 돌계장을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두 사람이 찾은 돌계장 전문점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정 과장은 “바다 향이 감도는 돌계장에 씹싸름한 갯김치를 얹어 먹으니 임금님도 부럽지 않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여수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로 유명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에서 돌산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남해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는 일반 캐빈 40대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0대가



차가 들어선 여수 밤바다로 발길을 재촉했다. 종포해양공원에 있는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를 벗 삼아 맛깔 나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는 명소다.

정 과장은 “여수 밤바다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며 “풍경과 분위기 모든 게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제법 오래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꽤 늦은 시각이 돼서야 숙소로 향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친구와 그 앞날을 응원해주는 벗의 소중함을 깨달은 특별한 밤. 두 친구의 여행은 그렇게 수많은 추억을 아로새긴 채 담담히 흘러가고 있었다.



운영된다. 짜릿한 스릴을 느끼려면 크리스탈 캐빈을 권한다. 제법 오랜 기다림 끝에 크리스탈 캐빈에 탑승한 박 과장은 “발아래로 지나가는 푸른 바다와 여수 시내의 풍경이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땅에 발을 딛자 두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내심 무서웠던 모양새다. 그럼에도 꽤 만족스러웠는지 다음 날 또 한 번 케이블카를 타기로 뜻을 모았다. 여행 첫날의 마지막 목적지인 밤바다로 향하기 전, 두 사람은 숙소에 들러 재정비를 마쳤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갈리기 시작하자 낭만포

Mini Interview



정영주
과장

박문숙
과장

“30년 청춘을 함께한 심평원에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심평원에 입사한 지 어느새 30년이 됐습니다. 제 청춘이 스며있는 직장 덕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문숙 과장(광주지원 고객지원부)

“소중한 동기이자 친구의 새 출발 응원합니다”

옛날 얼굴로 어색한 인사를 나눈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0년이 흘렀다니 새삼스럽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친구의 앞길이 항상 환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영주 과장(대전지원 고객지원부)



여수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여수 엑스포의 랜드마크 ‘아쿠아플라넷 여수’

2012년 문을 연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 희귀종인 벨루가와 바이칼 물범 등 총 3만 4,000마리의 해양생물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여주시 오동도로 61-11 / 061-660-11115



섬 자체가 하나의 동백꽃 ‘오동도’

동백나무 군락이 있는 오동도는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른 봄부터 꽃을 피우는 붉은 동백꽃은 봄의 전령사로 불리기 때문이다. 섬을 빙 둘러 산책로가 잘 조성된 까닭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명소다.

- 전라남도 여주시 수정동 산1-11 / 061-659-1819



남도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돌게장’

갯김치와 함께 여수2미로 꼽히는 돌게장을 메인으로 한 상차림. 쫄쫄한 식감을 자랑하는 돌게장과 갯김치를 비롯해 다양한 반찬이 차려지는 돌게장 백반은 밥도둑이 따로 없다.

- 전라남도 여주시 봉산남3길 12 (두꺼비 계장) / 061-643-1880



맛은 물론 분위기까지 완벽! ‘여수낭만포차거리’

‘여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밤에 확인할 수 있다’는 말마따나 여수 여행의 백미는 여수 밤바다에 있다. 종포해양공원에 늘어선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름다운 밤바다의 풍경을 벗 삼아 맛깔스러운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낭만포차에 들려보자.

- 전라남도 여주시 중앙동 2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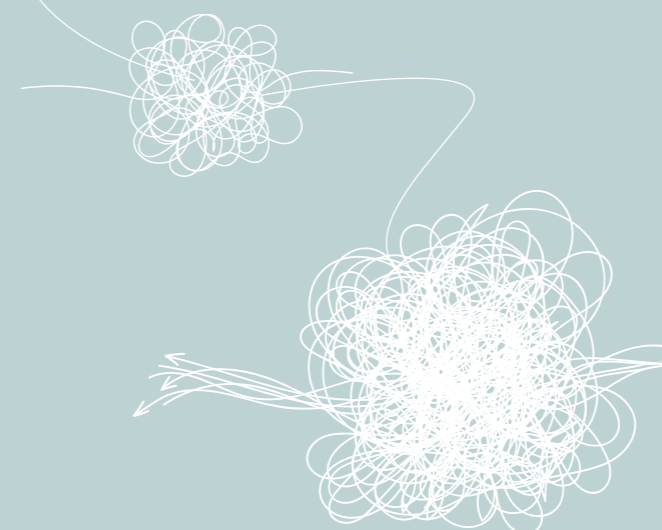
마음의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몇 년간 우리나라에는 각종 큰 사고가 발생했다. 공통 점은 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 중 일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적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아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사고나 범죄같이 죽을 뻔한 위험을 경험한 뒤에는 다음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 첫째로 공포스러운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른다. 진절머리가 나서 잊고 싶지만 관련된 꿈도 계속 꾸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만 같다. 둘째로 공포 상황과 관련된 자극을 피하게 된다. 사고와 연관해서는 말을 꺼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다. 셋째로 사소한 일이나 조그만 자극에도 깜짝 놀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잠들기 힘들고 잠 들어도 자주 깬다. 또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고 집중하기 힘들다. 긴장을 풀지 못하고 주위를 경계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우리는 평소 잊고 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신만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일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방송을 통해 끔찍한 사고를 접하면 마음 속에 꼭 눌러 놓은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내민다. 좁은 의미의 트라우마는 사고나 범죄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범위를 넓게 보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심리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 중 50% 내외에서 공포 상황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공포를 연관시키는 것을 피하려 하며 사소한 일에도 놀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 다행인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이들 중 70%는 1년 안에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나 30%는 1년 후에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 증상이 사그라지는 듯하다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혹은 또다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악화되기도 한다. 불행한 경우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되기도 한다. 특히 깜짝 놀라는 증상, 악몽, 짜증, 우울 등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 증상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겹쳐서 발생하면 사회적응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자살로도 이어진다.

예방을 위해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자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데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시각에도 피부 접촉, 공기 흡입, 음식물 섭취, 물의 섭취 과정을 통해 자극과 균에 지속해서 노출된다. 면역력이 있을 때는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접촉도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평소 자생력과 면역력을 갖춰야 상처받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미다. 인생이 즐거워야 한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 것처럼 나온다. 하지만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은 대단한 목적이 아니다. 저녁식사 때 먹는 구수한 된장찌개, 주말을 기다리게 하는 신작 영화, 사랑하는 사람의 따스함 등이 우리 삶을 지켜준다. 즐거움,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면 마음은 상처를 훨씬 덜 받게 된다. 흔히 상처받기 때문에 즐겁고 유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즐거움과 유쾌함을 멀리하는 마음이 상처에 취약한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법

- 지나친 분노와 원망은 상처만 더욱 키운다.
-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 마라.
- 뇌가 회복되기를 기다려라.
- 연관된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라.
- 상처 주는 사람을 피하자.
- 상처를 파헤치지 말자.
- 위로를 받자.
- 상처를 성장의 계기로 삼자.



신체적 손상은 기껏해야 원상복구가 최선의 결과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아픈 상처도 망각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동안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다. 당장 마음이 아플까 봐 차일피일 미뤄오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면, 오히려 성장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HIRA News



일·가정 균형 및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참여(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6일, 원주 본원에서 육아방송,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이 공동 진행 중인 '리더들이 앞장서는 일·가정 균형 및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심사평가원 기관 및 업무 소개, 유연근무제·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제도 소개, 일·가정 균형 및 아빠 육아 실천선언문 서명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승택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일과 삶이 공존하는 문화를 창출하여 임직원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 WPRO 사무처장 방문(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2일,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신임 사무처장 타케시 박사(Dr. Takeshi Kasai)의 방문을 맞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의료심사평가 개선사업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타케시 박사는 "지난해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의약품 대처에 있어 ICT 기반 의료심사평가 시스템(HIRA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 대응하는 심사평가원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WHO 국가 보건시스템 개선사업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헬스케어 국무총리상 수상(3.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MEDICAL KOREA 2019' 행사에서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을 바레인으로 수출하는 등 건강보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베트남 보건부 장관 방문(3.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8일, 베트남 김 티엔 보건부 장관(H.E. Nguyen Thi Kim Tien) 및 고위급 공무원 20여 명의 방문을 맞아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은 심사평가원이 주력하는 아세안 지역 국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국으로, 2018년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 티엔 장관은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는 베트남 보건시스템의 개혁 작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입학식 개최(3.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정부 부처를 비롯해 보건의료,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40여 명이 참여하며,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4개월간 진행된다.



신포괄 시범사업 준비 현장견학 교육 실시(3.18.~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23일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준비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현장견학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시범사업 실시기관과 공동으로 '병원 신포괄 시스템 운영 경험 소개'와 'DB 구축 시연 등 시범사업 참여 준비기관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내용' 등으로 진행하였다.



LETTER
독자의 편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폐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자료가 많아서 끝까지 다 읽어 보았네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의약계 안내사항의 새로운 변경사항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연어 스테이크도 꼭 해 먹을게요.

- 전북 남원시 **홍주희** 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관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2019년 의료계 전반에 크고 작은 정책들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뿐만 아니라, 지방 각 지원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 울산시 북구 **김휘곤** 님 -

건강한 동행 '울산대학교 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본격 시동'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중증 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이르는 다양한 질환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의사와 환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서울시 양천구 **성애선** 님 -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9년도 1·2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구중진(부산시 북구), 권성현(대구시 서구), 김경훈(경기 시흥시), 김난주(전북 고창군), 김유진(경기 평택시), 김휘곤(울산시 북구), 나원미(충남 부여군), 도성열(대구시 달서구), 박주열(경기 하남시), 배명순(인천시 남동구), 성애선(서울시 양천구), 송지현(충북 청주시), 우도형(서울시 영등포구), 최선영(경기 고양시), 최연화(광주시 남구), 한상미(광주시 남구), 한재현(서울시 서초구), 허은양(대구시 서구), 홍주희(전북 남원시), 황득규(부산시 동래구)

좋은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맞힌 독자분들에게 도서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웹진(hirasabo.or.kr)' >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상반기 교육 안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8년 5월부터 시행)



교육 일정

- 1회차 : 2019년 4월 28일(일)
- 2회차 : 2019년 5월 19일(일)

장소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ko.surveymonkey.com/r/mydoctor2019_1

QR 코드

- play store/App store에 'QR code 리더' 검색 및 설치
- 휴대폰 카메라 통해 우측의 QR code 읽기
- 교육 신청정보 입력



이메일

healthservice2018@korea.kr에 신청서 제출

우편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우)01022
*교육 당일 현장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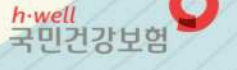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용 안내

 <http://biz.hira.or.kr>



01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용에 최적인 인터넷 브라우저



- 익스플로러 버전 10 이상, 크롬 브라우저 권장
- 인터넷 옛지, 스윙브라우저 등 타 브라우저 비권장

02 로그인 장애, 프로그램 설치 오류, 최종 제출 및 각종 자료(첨부 파일) 제출 문제 발생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내역 확인

- ① 도구 → 팝업 차단 → 팝업 차단 켜기 해제
- ②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hira.or.kr 추가
- ③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설정 →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 체크
- ④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hira.or.kr 추가
- ⑤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삭제
→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삭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내역 확인

- ① 설정 → 팝업 검색 → 팝업을 허용
- ② 방문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 삭제



의약계 안내사항

각 요양기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6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48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서비스	52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54
전문병원 지정 제도	56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	58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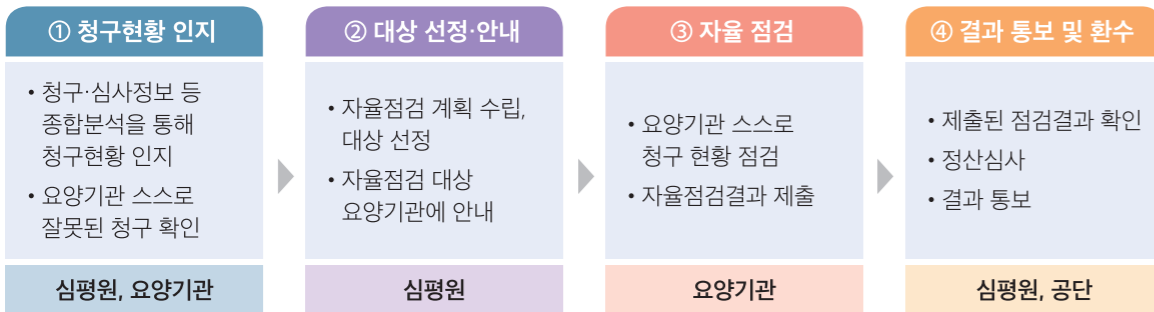
자율점검제란?

-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자율점검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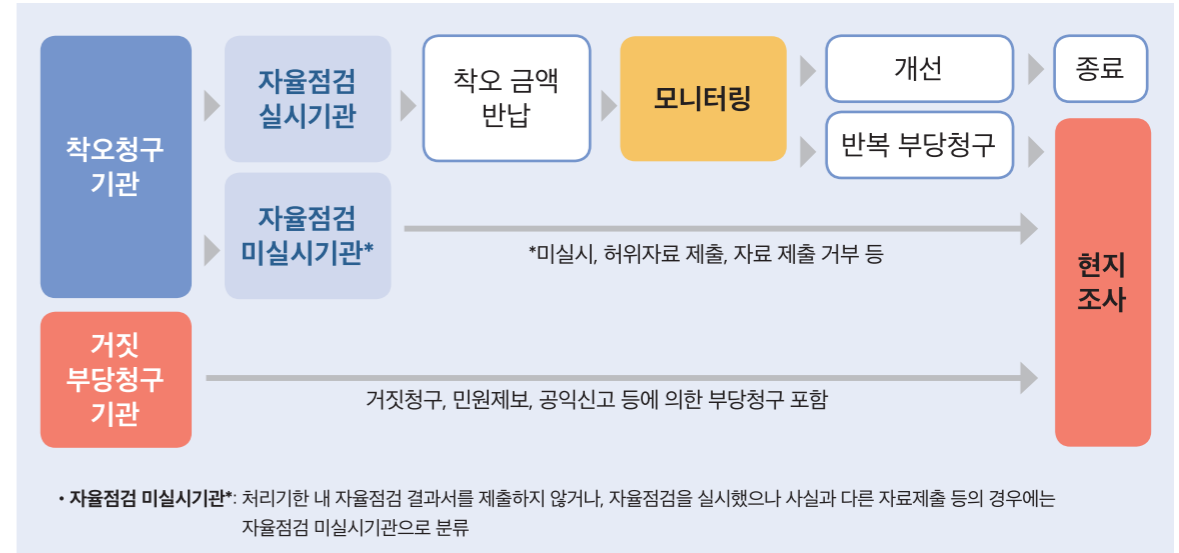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로 잘못 청구된 금액을 반납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업무 절차 안내



- **대상항목:**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항목으로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청구 사항
- **대상기관:**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청구 행태를 보이는 요양기관(심사평가원에서 점검 대상기관 안내)
- **신고서류:** '자율점검결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반납 동의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
 - (부당) 청구 내역, 사실관계, 반납 동의서 등
 - (정당) 청구의 정당성 및 사유 등을 작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출기한:**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자율점검 체계도



Q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의 차이가 궁금해요!

- Ⓐ **현지조사**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청구된 모든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적정 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율점검**은 점검대상 항목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스스로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 반납하게 됩니다.

Q 자율점검 대상으로 안내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 자율점검 대상으로 안내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 관계법령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청구 등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사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착오 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Q 자율점검 대상 항목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 Ⓐ 의약단체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청구 상세 내역을 안내합니다. 선정 주기는 연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게 됩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 현장조사 실시

내가 먹는 약, 어디를 거쳐 왔을까?

의약품은 우리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안전한 제조, 정상적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는 의약품을 도매상, 병원, 약국에 공급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센터에 유통정보(공급내역)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유통된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왔습니다.

*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약도 있나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이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도매상이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① 일부 업체는 불법 판촉행위로 의약품을 사용하였고(리베이트),
- ② 마늘주사·태반주사·마취제 등을 빼돌려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불법 판매하거나,
- ③ 독감백신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개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④ 또, 탈세를 위해 거짓 매입·매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은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서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이 과연 올바르게 제조되었는지, 유통과정상 규정에 맞는 보관방법을 준수한 의약품인지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비정상 유통 의약품'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지요. 또한 리베이트, 약값 조작 등 불법유통 행위는 건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이제 그만!

의약품센터는 올해 기본적인 공급업체의 유통정보 보고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아래와 같은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중점 확인 유형

1.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 미용업소에 수액제·마취제 공급,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에게 백신 공급
 - 유통과정에서 **미확인 일련번호***가 부착된 의약품을 공급(가짜 약, 리베이트)
2.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 거짓 기부·폐기를 가장해 **의약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통하는 업체**
 -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부·폐기하는 업체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
 - 제조·수입사·대형도매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통한 **민원 다발생, 정상 유통을 방해하는 업체**
 - 요양기관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공급가격 조작'** 업체(건보법 101조 위반)
 -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 시 지속적으로 보고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오류코드 남발**)

*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전문의약품에 부착되는 고유번호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이 보고한 유통정보(공급내역)를 바탕으로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진다면 생산·매입된 내역과 공급·판매한 내역의 품목과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만들지 않고 사지도 않은 물건을 팔 수는 없겠지요.

만약 약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재고인지, 유통정보를 빠뜨리거나 다른 약과 혼동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의약품센터에 보고할 수 없는 불법 유통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급업체의 유통정보(공급내역) 보고가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센터는 잘못된 경중에 따라 주의 통보를 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처분을 의뢰합니다. 더불어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그날까지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현장조사 외에도 '찾아가는 행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1년 미만의 신생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유통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요양기관 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의약품센터에서 수집하고 검증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하여 불법유통 되거나 위해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투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약품센터는 전국 2,787개* 의약품 제조·수입사,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해지고 국민 모두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2017년 기준: 제조사 259개 / 수입사 174개 / 도매상 2,354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서비스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아(17.6.26.) 매년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16.8.)
-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
 -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작년(2018년)의 경우 대도시를 거점으로 총 27회 3,84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전국 9만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 올해는 교육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요양기관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 ※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정보취급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함

온라인 교육서비스

- 교육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49개 항목별로 5분 내외의 단편 영상으로 구성하여 상세하면서도 자투리 시간에 시청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서비스 이용방법

- ①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② 바로가기/빠른메뉴: 메인화면 왼쪽 하단 **개인정보보호 교육** 버튼 클릭
- 찾아가기: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교육
- ③ 수료증(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찾아가는 절차



서비스 화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사업 내용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시범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3년간)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대상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이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시범기관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

재택의료이 필요한 의료적 요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도흡인(Suction) ·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
|---|--|

· 제공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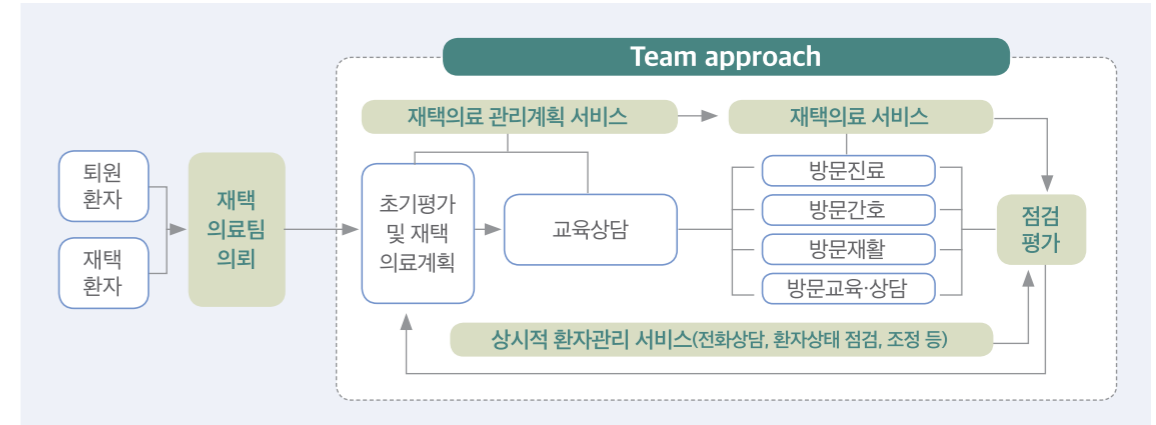
-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 환자 수에 따라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 ①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로 안정적 이행(transition) 지원을 위한 재택의료관리계획서비스
- ② 재택의료팀(의사 또는 간호사, 전문인력) 방문을 통한 환자상태 확인 및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 ③ 전화상담 등을 통한 환자상태 점검 및 의료적 상황 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상시적 환자관리서비스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



· 서비스 상세내용

- (환자의뢰 및 신청) 재택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퇴원 단계 또는 외래진료(재택) 환자의 담당의사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뢰서'를 작성하여 재택의료팀에 의뢰
- (초기평가)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상담 및 평가를 시행
-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 사정 및 가족 심층 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를 평가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 (교육·상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처치 및 의료장비 관리, 영양관리, 약물복용, 재활치료 등 환자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
- (재택의료 서비스) 재택의료 관리계획 또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을 제공 / 의사방문, 간호사방문, 재활치료사방문, 방문교육·상담
- (상시적 환자관리 서비스)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점검하며, 서비스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환자관리 조정·지원

· 본인부담 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 문의

- 중증소아 재택의료 이용신청: 시범사업 참여병원(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 및 외래(병동)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용, 지침 및 수가 청구방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592, 1591)



전문병원 지정 제도

전문병원이란?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 분야로는 의과 17개 분야, 한방 3개 분야로 총 20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별 현황

지정 분야	의과(17)	한방(3)
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모자)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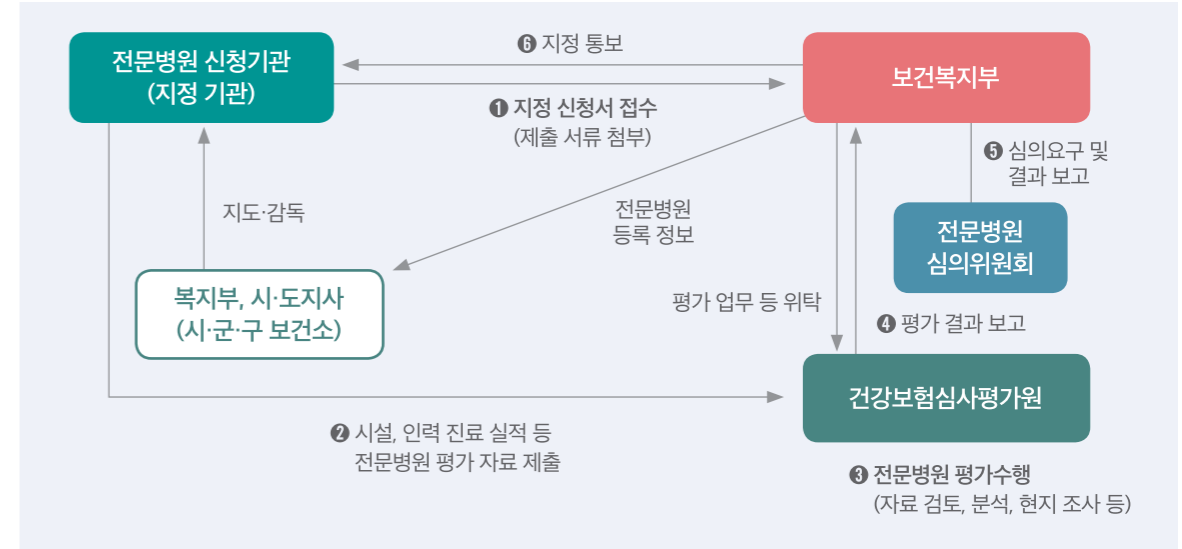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일반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분야별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총 7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제도 도입 이후 2기부터 적용하였습니다. 7가지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지역별,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3년간 전문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

지정 기준	내용
환자구성비율	• 병원 전체 입원 환자 대비 전문 분야 입원환자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예) 관절 45%, 대장항문 45%, 알코올 66% 등
진료량	• 전문 분야에 대한 신청 병원 진료량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량의 상위 30퍼센타일* 이내이어야 함 * 예) 관절 5,575명, 척추 2,402명 등
필수진료과목	• 전문 분야별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예) 관절: 정형외과·내과, 대장항문: 외과·내과 등
의료인력	• 전문 분야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각각 해당 인원 이상 두어야 함 * 예) 관절: 정형외과 전문의 8명,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 8명 등
병상/시설 및 기구	• 전문 분야별 최소한의 병상(시설 및 기구) 수를 갖추어야 함 * 예) 관절-대장항문: 80병상, 화상: 60병상 등
의료 질	• 의료질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함 - 20개 분야 총 346개 지표에 대해 절대 평가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전문병원 지정 추진체계



전문병원 현황

전문병원은 현재 3기(2018~2020) 108개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59, 대전·충북 6, 광주·전남 6, 대구·경북 18, 부산·울산·경남 19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문병원 분야별 지정 기관수 현황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19	3	4	4	1	9	1	16	5	1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척추	한방중풍	한방부인과
12	-	1	9	2	2	10	8	-	1

전문병원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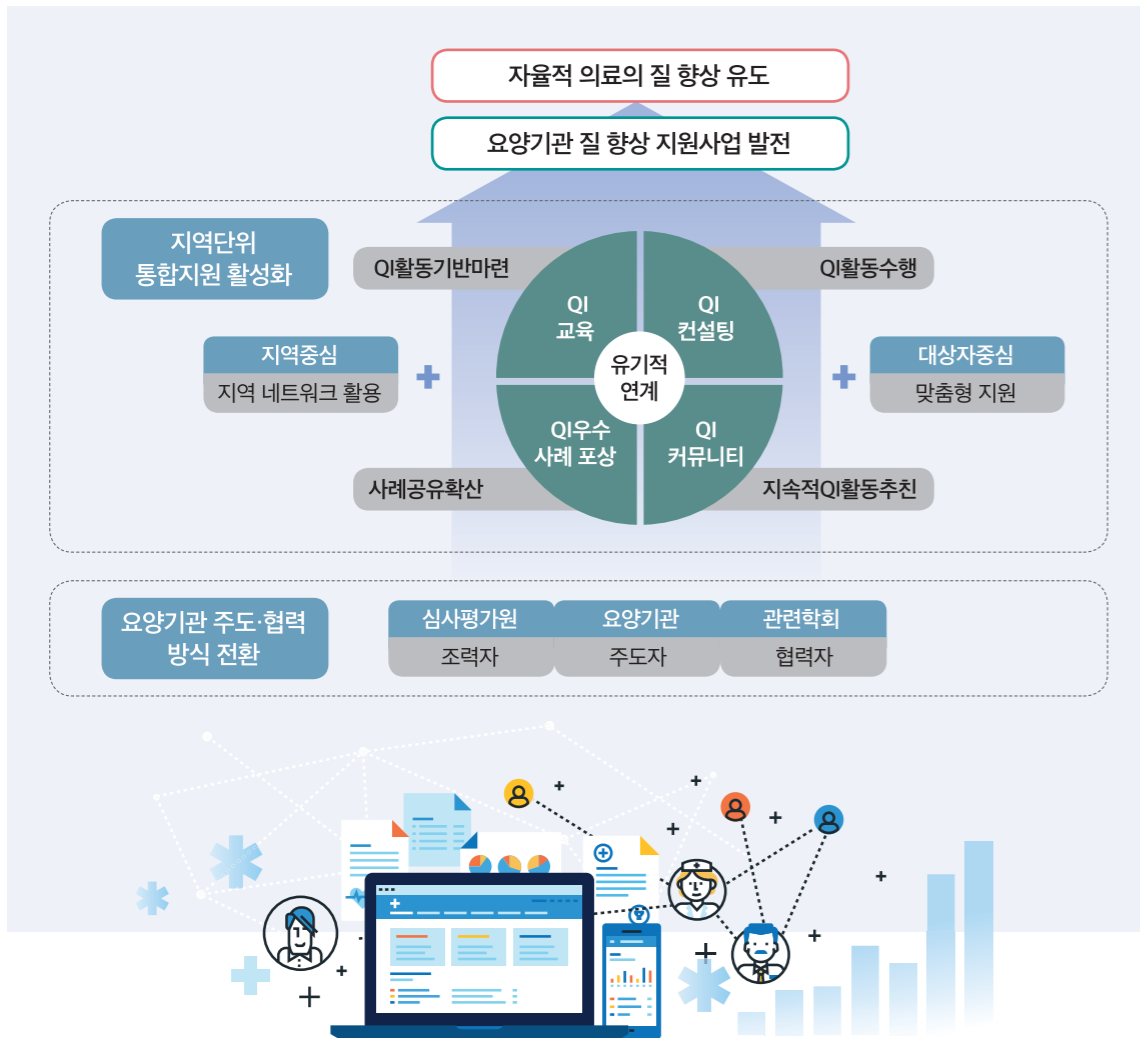
전문병원은 별도의 마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며,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 마크		전문병원 명단 확인 방법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병원·약국찾기/ 세부조건별찾기/ 병원규모별·전문병원
---------	--	---------------	--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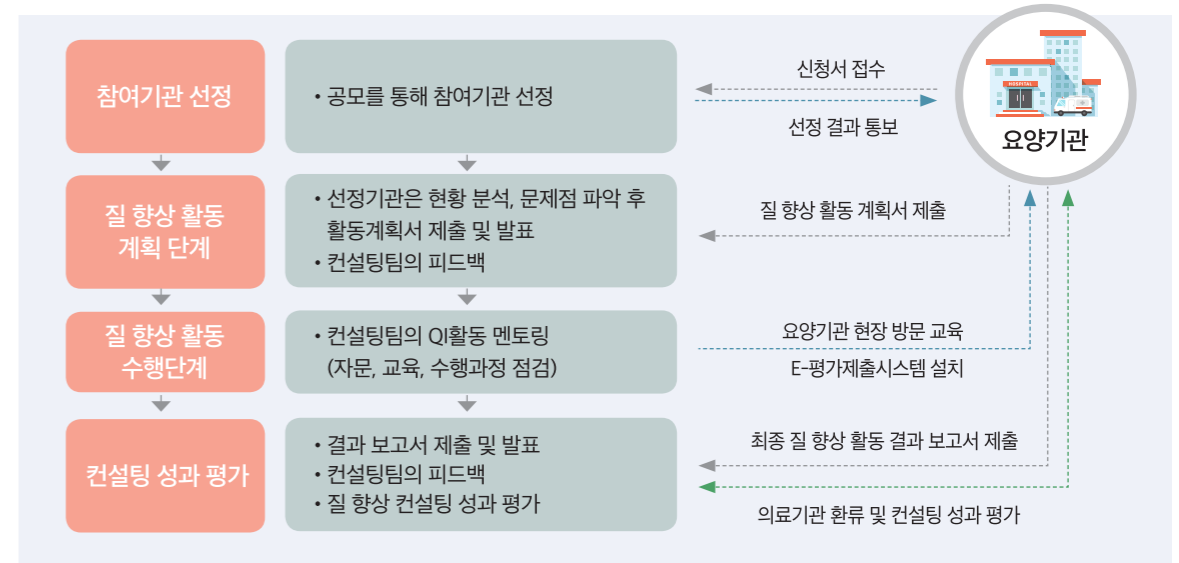
- 의료 질 향상이 필요한 요양기관에 관련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교육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평가결과 활용 모범사례 발굴·포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의 종류

1. 맞춤형 질 향상(QI) 컨설팅

- 질 향상 기반이 취약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점 파악, 개선 활동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도와드립니다. 참여·활동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수상과 포상금을 수여합니다.



• 컨설팅 주제

질 향상이 필요한 적정성 평가항목의 QI 활동 전 과정

• 컨설팅 대상 및 지역

- 평가결과 하위기관(컨설팅 신청 평가항목 결과 3~5등급 또는 백분위수 50 이상)
- 적정성 평가 담당자 또는 QI 담당자가 있는 의료기관
- 평가 항목 '질 향상 지원' 연계에 따른 컨설팅 필요기관
- 컨설팅 시 멘토로 참여 가능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있는 지역

• 신청 방법

맞춤형 QI 컨설팅 담당자에게 이메일(ryumju6@hira.or.kr)로 접수합니다.

• 세부 사항

-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평가알림방」
- 보도자료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 유관기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보험심사간호사회, 한국QI간호사회



2. QI 교육과정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적정성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QI 교육은 일반과정과 요양병원과정으로 분류하여 교육합니다.
- 2019년 QI 교육과정은 일반과정 4회, 요양병원과정 3회 예정입니다.

일반과정	교육 대상자: 종합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적정성 평가 지표관리자 또는 QI 업무담당자
요양병원과정	교육 대상자: 요양병원 중 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근무하는 적정성 평가 지표관리자 또는 QI 업무담당자

- **교육 내용:**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와 질 향상(QI) 활동이 주 교육 주제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 지표 개념 및 구성,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QI 기본 개념 및 QI의 필요성
 - 욕창 예방 및 관리(요양병원과정에 한함)
 - QI 활동 사례공유
 - [실습과정] QI 활동의 실제: QI 활동 단계별 접근방법과 분임토의
- **신청방법:**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 > 평가일반 > 평가설명회」 온라인 접수

3.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요양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질 향상 활동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질 향상 활동 동기 고취 및 다양한 벤치마킹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와드립니다.
- 2017년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를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 주관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질 향상(QI) 활동을 수행한 요양기관을 심사하여 선정된 기관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연제 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 연제 발표 우수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상패(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 **대상 및 주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한 전체 의료기관은 응모 가능하며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질 향상 활동 사례를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홈페이지(www.kosqua.net)를 통해 접수하시면 구연(연제발표) 부문에 한하여 심사 및 선정합니다.

4. QI 커뮤니티

- 최근 질 향상 이슈 및 실무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체계적·자율적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요양기관 QI교육과정 및 각종 발표자료 등 제공
- **이용방법:** 우리원 홈페이지「국민참여」> 커뮤니티 > 고객자문단 > QI 커뮤니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2019.3.11.~6.10.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